

# 주요 천문 현상

## 3월

- 3일 20:00 수성 서방최대이각(27° 09')
- 5일 13:59 경칩(태양 황경 345°)
- 8일 02:14 합삭
- 9일 05:00 천왕성 합
- 14일 19:46 상현
- 17일 프레스페 성단 엄폐
- 20일 14:48 춘분(태양 황경 0°)
- 22일 03:40 망
- 30일 06:47 하현



### ◎ 달에 의한 프레스페 성단 엄폐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달을 매일 관측해보면 약 13°씩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별 사이를 지나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7.3일이며, 이를 항성월이라고 한다. 따라서 달은 하룻밤 동안 지구의 자전에 의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주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공전운동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조금씩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달의 일주운동 속도는 해나 행성, 항성보다 느리고, 이들 천체가 느림보 달 뒤로 추월해 앞서가는 현상인 엄폐나 일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달 17일 밤에는 달에 의한 프레스페 성단(별집 성단으로도 불림) 엄폐 현상을 볼 수 있다. 게 자리의 프레스페 성단은 맑은 날 밤에 맨눈으로 성운과 같은 뿌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밝고 큰 산개성단으로, 이날 밤 9시 30분 무렵부터 성단의 서쪽으로 달이 접근하면서 엄폐가 시작된다. 밤 11시 45분쯤에 달은 성단의 중심부를 지나며, 그로부터 2시간여가 지난 18일 1시 50분쯤 성단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 프레스페 성단의 겉보기 크기는 95'으로 보름달 겉보기 크기의 3배에 달하므로 쌍안경이나 저배율 망원경으로 관측해야 성단 전체와 달을 한 시야에 볼 수 있다. 황도 상에 있는 게 자리의 프레스페 성단과 함께 황소자리의 플레이아데스 성단도 종종 엄폐의 대상이 된다.

